

다자이후 덴만구와 막부 말기

1603년부터 1867년까지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통치 체제는 새롭게 즉위한 메이지 천황(1852-1912)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도입되면서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끊임없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마지막 수 년간은 극심한 정치적인 변화가 일었던 시기였습니다. 막부 말기에는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체제와 발명품이 일본으로 들어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했던 구 막부군과 체제의 변화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표방하는 신정부군 간에 사상자를 낼 만큼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교토에 거주하는 귀족 계급이었던 조정 관리들은 794년에 교토가 도읍으로 지정된 후, 메이지 유신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일본의 사회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막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막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무사들에 의해 7명의 유력한 조정 관리들이 교토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중 5명이 다자이후로 도망쳤는데, 1865년부터 1867년에 걸쳐 다자이후 덴만구의 경내에 있는 숙소 엔주오인에서 머물며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구성 요소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다자이후 덴만구는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산조 사네토미(1837-1891)는 교토에서 다자이후로 도망쳤던 조정 관리 5명 중 한 명입니다. 산조는 이후 내대신을 거쳐 1889년에 임시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합니다. 투구와 철부채,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안장 등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은 산조가 다자이후 덴만구에 봉납한 것들입니다.